



미 증시, 메타 호실적 등에도, 금리 상승 부담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27일(목) 미국 증시는 메타(+4.4%), 마이크론(+5.5%) 등 성장주 및 반도체주 강세, 덜 매파적이었던 ECB 회의에도, 2분기 미국 성장률 호조로 인한 연준 추가 긴축 경계감, 10년물 금리 4%대 재진입 등이 장 중반 이후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마감(다우 -0.7%, S&P500 -0.6%, 나스닥 -0.6%).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0.9%)을 제외한 부동산(-2.1%), 유틸리티(-1.7%), 금융(-1.3%) 등 전업종이 약세. 메타(+4.4%)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분기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온라인 광고 수입 증가, 인스타그램 및 릴스의 수익화 등으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영향에 힘입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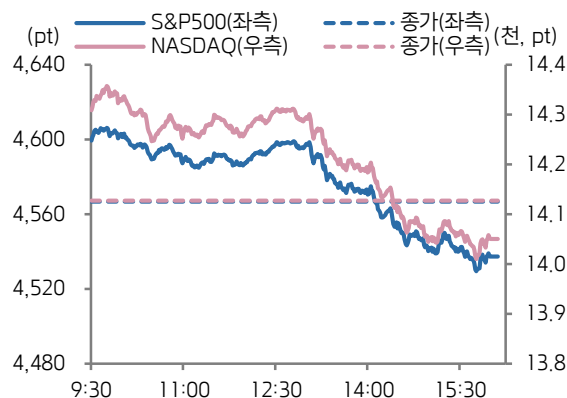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2.4%(QoQ, 연율)로 1분기(2.0%) 및 컨센(1.8%)을 상회. 미 상무부측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이 전분기에 비해 둔화(4.2% → 1.6%)됐으나, 민간 재고투자 및 비거주용투자가 개선됐다는 점이 성장률 호조의 배경이라고 설명. 한편, 2분기 PCE 물가는 2.6%로 1분기(4.1%)에 비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재확인시켜준 상황.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1 만건으로 전주(22.8 만건) 및 컨센(23.5 만건)을 하회하면서 약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6월 내구재주문도 4.7%(MoM)으로 전월(2.0%) 및 컨센(1.0%)을 모두 상회하는 등 2분기까지의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누려왔음을 시사.

ECB는 7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3.75%로 25bp 인상했으며,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 성명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오랜기간 동안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2%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힘. 또 향후 금리 결정은 경제지표, 인플레이션 역학, 통화정책 전달 강도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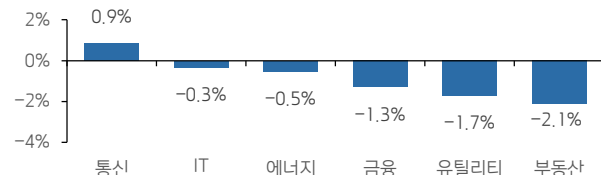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높은 수준을 오랜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 또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것과 유사하게, 9월 및 그 이후 회의에서 금리 결정은 인상 혹은 동결 쪽 모두 열려 있다고 언급. 유로존 경제의 경우 역대 수요 부진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단기 전망이 악화됐다고 평가.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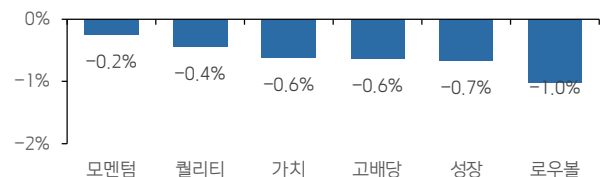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03.81	+0.44%	USD/KRW	1,277.54	+0.25%
코스피 200	344.76	+1.23%	달러 지수	101.74	+0.85%
코스닥	883.79	-1.87%	EUR/USD	1.10	+0%
코스닥 150	1,443.28	-4.41%	USD/CNH	7.17	+0.01%
S&P500	4,537.41	-0.64%	USD/JPY	139.34	-0.1%
NASDAQ	14,050.11	-0.55%	채권시장		
다우	35,282.72	-0.67%	국고채 3년	3.622	-1.7bp
VIX	14.41	+9.25%	국고채 10년	3.655	-2.5bp
러셀 2000	1,954.90	-1.29%	미국 국채 2년	4.928	+7.7bp
필라. 반도체	3,768.27	+1.86%	미국 국채 10년	3.998	+13.1bp
다우 운송	16,408.02	-1.28%	미국 국채 30년	4.039	+10.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447.44	+2.33%	WTI	80.09	+1.66%
MSCI 전세계 지수	700.10	-0.27%	브렌트유	83.86	+1.13%
MSCI DM 지수	3,034.41	-0.34%	금	1985.2	-1.21%
MSCI EM 지수	1,035.15	+0.32%	은	24.24	-2.37%
MSCI 한국 ETF	66.32	-1.79%	구리	386.35	-0.6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2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5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82.0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상회로 인한 금리급등 부담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인텔(8.39%), 램리서치(+0.01%)의 시간외 강세 3. 일본 YCC 정책 변화 시사에 따른 엔화 환율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상승 출발한 증시가 하락전환한 이유는 1)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상회, 2) 알파벳과 메타의 광고매출 증가, 3) 일본 YCC 정책 장기금리 변동폭 상향 시사 등으로 인한 시장 금리 급등 및 달러 강세 부담에 기인. 13 일 연속 강세 보이던 다우,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모두 하락.

7 월 FOMC 기자회견에서 침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언급한 파월의장의 발언에 이어, 미국 2 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2.4%(예상 1.8%, 1 분기 2.0%) 기록. 미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1.6%(예상 1.2%, 1 분기 4.2%)로 예상치를 넘어서는 등, 소비, 민간투자의 기여도가 컸던 것으로 분석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의 경제에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가능성 부각. 그외 경제 지표 역시 소비가 강력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6 월 내구재주문 MOM 4.7%(예상 1.5%, 전월 2.0%) 증가했고 운송 제외 내구재 주문, 기업의 투자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 역시 예상치 상회,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치 하회 등. 추가적으로 알파벳과 메타는 실적 발표에서 AI 기반 광고 매출의 회복을 언급. 종합적으로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해석되는 결과.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두고 연준 위원들이나 의사에서도 의견이 합치되고 있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수는 수시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 8 월 24-26 일 예정된 잭슨홀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스탠스 변화가 관건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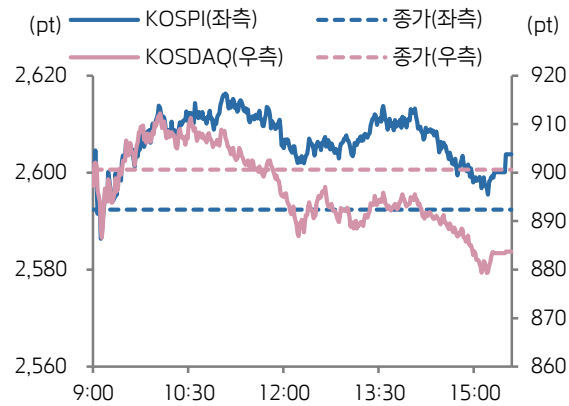
다만 PCE 물가는 2.2%(예상 3.0%, 1 분기 4.0%)로 2%대 도달, 근원 PCE 물가 3.8%(예상 4.0%, 전월 4.9%) 역시 예상보다 둔화되며 인플레이 우려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 또한 메타(4.4%), 램리서치(9.28%), 인텔(0.55%)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과 AI 관련 긍정적인 가이드선 제시로 강세를 보였던 점은 개별 기업 모멘텀은 살아있으며 미 증시의 차익 실현과 별개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관련주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요인.

27 일(목) 국내증시는 무난했던 7 월 FOMC 영향력은 제한된 가운데, 이차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반도체 및 여타 업종으로 분산되며 혼조세 (KOSPI +0.44%, KOSDAQ -1.86%).

26 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사 등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10% 넘게 조정. 코스닥 내 시총 상위에서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이라 지수는 하락했지만 상승종목 수가 다수. 삼성전자 실적 컨콜에서 재고 감소와 낸드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감산 언급,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HBM 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제시 등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 기대감 강화되며 SK 하이닉스(9.7%) 비롯한 이오테크닉스(27.1%), ISC(16.7%) 등 관련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급등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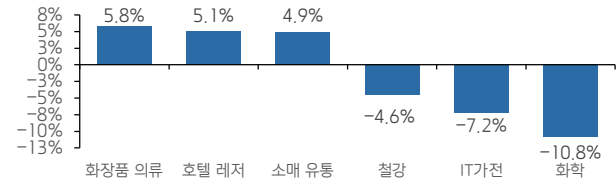
반면에 현대미포조선(-6.7%), HD 현대중공업(-5.8%) 등 이익개선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선 업종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이 해소된 이후에는 결국 실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그동안 수급이 비어 있었던 항공, 레저, 화장품 등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나 서비스, 제약바이오 업종으로도 수급이 분산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저평가된 업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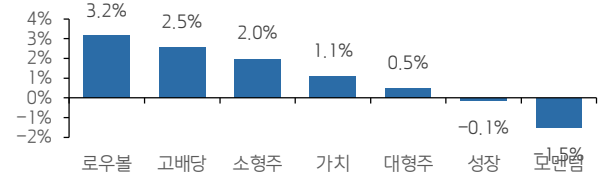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